

잘 던지고, 잘 치고... 기분좋은 2연승



양현종



필

양, 직구 최고 145km 2이닝 퍼펙트...필, 스리런 '쾌조의 스타트'
임준혁 4이닝 무실점·최희섭 멀티히트...KIA, 삼성에 6-3 승

KIA 홈 시범경기 무료

14~15일 LG, 17~18일 SK전...오후 1시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시범경기 4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KIA가 1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시범 경기의 무료 입장을 확정했다. 올 시즌부터 주말 시범경기의 경우 구단 별로 유료화할 수 있도록 했지만 KIA는 무료화를 최종 결정했다. KIA는 오는 14~15일 LG와 홈 경기를 가진 뒤, 17~18일에도 SK와 안방에서 시범경기를 치른다. 경기는 오후 1시부터 시작되며 관람객은 오전 11시부터 입장할 수 있다. 중앙 테이블석을 제외한 모든 좌석에 선착순으로 앉을 수 있지만 리모델링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일부 좌석은 통제된다. 또 KIA는 정규리그와 동일하게 응원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올 시즌부터는 KBO의 '세이프(SAFE) 캠페인'에 따라 주류 및 병류, 캔류의 경기장 반입이 금지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랑이 군단'이 시범경기에서 기분 좋은 2연승에 성공했다. KIA 타이거즈가 11일 포항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범경기에서 6-3 승리를 거두며 연승을 이었다. 좌완 에이스 양현종의 2이닝 퍼펙트 호투와 필의 스리런 등 내용도 알찼다. 감춰져 있던 양현종의 전력에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스프링 캠프에서 천천히 몸을 끌어올리면서 단 한 차례도 마운드에 오르지 않았던 양현종이다. 캠프 종료를 앞두고 조기 귀국을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첫 실전 피칭에서 쾌조의 컨디션을 보여주며 시즌 전망을 밝혔다. 이날 선발로 등판한 양현종은 첫 타자 나바로와 8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1루수 파울 플라이로 첫 아웃카운트를 잡았다. 2번 구자욱을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에는 2개의 공으로 박석민을 3루수 땅볼로 처리했다.

양현종은 2회 선두타자 이승엽을 1루수 땅볼로 잡은 뒤 박찬호와 박찬도를 각각 유격수 땅볼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마운드를 내려왔다. 총 28개의 공으로 6개의 아웃카운트를 채웠고, 직구 최고 스피드는 145km를 찍었다. 한국 2년차 필도 시범경기 첫 홈런포를 가동시켰다. 필은 최병연과 김원섭의 안타로 만들어진 3회 1사 1:2 루에서 좌측 담장 넘어가는 3점포를 때려냈다. 지난 시즌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와 시범경기 내내 고전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빠른 페이스로 시즌 준비를 하고 있다. 임준혁의 선발 어필 무대도 이어졌다. 10일 한파 취소 여파로 11일 선발 예정이었던 임준혁은 양현종에 이어 3회부터 마운드에 올랐다. 볼넷으로 경기를 시작했고, 대수비로 들어간 3루수 황대인의 실책 등이 나왔지만 임준혁은 실점 없이 3회

를 넘겼다. 임준혁은 4회 2개의 탈삼진 포함 삼자범퇴를 기록하는 등 4이닝 2피안타 2볼넷 2탈삼진 무실점의 피칭으로 꾸준함을 과시하며 자신의 입지를 넓혔다. 최희섭도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4번 타자 겸 지명타자로 출전한 최희섭은 첫 타석에서 유격수 직선타구로 물러났지만 3회 우중간 안타를 기록한 뒤, 6회 첫 타자로 나와 좌중간 2루타를 때려내며 멀티히트를 작성했다. 최희섭은 2루타로 출루한 뒤 대주자 박기남과 교체됐다. 마무리 후보 심동섭도 관중은 투구를 보였다. 심동섭은 3루수 송구실책으로 선두타자를 내보냈지만 내야 땅볼로 투 아웃을 채운 뒤, 대타 최형우를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6-3 승리를 완성시켰다. 난적 삼성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KIA는 12일 목동으로 이동해 넥센과 시범경기 2연전을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국민타자' 이승엽,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진로와 직업' 야구선수 소개

'국민타자' 이승엽(39·삼성 라이온즈)이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다. 삼성은 11일 "삼양미디어의 2015년 개정판 '진로와 직업' 교과서에 각계 직업 종사자 17명 중 한 명으로 이승엽이 소개됐다"며 "지난해 한 인터뷰가 2쪽에 걸쳐 게재됐다"고 전했다. 이승엽은 "내가 교과서에 실리다니... 정말 기쁘다. 내 아이들에게도 꼭 보여주고 싶다. 부끄럽지 않으려면 야구를 계속 잘해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삼양미디어는 "우리나라에 2만여 개 직업이 존재한

다. 프로야구 선수 인터뷰가 교과서에 실린 건 최초인 것 같다. 오랜기간 다양한 연령층의 팬으로부터 사랑받는 이승엽 선수 인터뷰를 통해 프로야구 선수의 삶과 직업인으로서의 모습 등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교과서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승엽은 "내가 7살 때 한국에 프로야구가 생겼다. 또래 친구가 과학자, 선생님, 의사, 대통령 등을 장래희망으로 꼽을 때 나는 야구선수가 꿈이라고 말했다"며 "외환위기로 많은 분들이 지쳐있던 1999년에 많은 홈런(54개)을 치며 기록을 세웠다. 내 홈런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부듯했다"고 했다. 이어 "꼭 야구가 아니어도 좋다. 공부 때문에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스포츠를 즐기며 삶을 추신하고 싶다"고 청소년에게 당부했고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의 좌우명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추신수, 2경기 연속 안타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이번 시범경기 들어 처음으로 3번 타자로 나서 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11일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시범경기에서 3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전, 4타수 1안타로 경기를 마쳤다. 좌완 투수만 3명을 상대한 추신수는 2차례 삼진을 당했다. 시범경기 타율은 0.250(12타수 3안타)을 유지했다. 지난 5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시범경기 4경기에 출전한 추신수가 3번 타순에 배치되기는 이날이 처음이다. 추신수는 그동안 우익수·지명 타자 등 포지션이 바뀌기는 했지만, 출근 2번 타자로 나섰다. 한 경기 뛰고 한 경기 쉬는 방식으로 시범경기를 치르는 추신수는 1회초 2사에서 안타를 때리며 지난 9일 시카고 컵스전(4타수 1안타)에 이어 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다. 팀은 4-5로 졌다. 추신수는 13일 5번 타자로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